

##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질병관리청에서 2022.9.16.(금)부터 22-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기에 예방수칙 및 예방접종,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수칙

-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.
-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.
-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하기.
 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.
  - 외출 후, 식사 전·후, 코를 풀거나 기침·재채기 후, 용변 후 등.
- 기침예절 실천하기.
  -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.
  -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.
  -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실천하기.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.

### 2. 인플루엔자 진단 시 등교여부

- 등교중지
  - 인플루엔자 진단 진료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.
- 등교 가능 시기
  - 해열제 복용 없이 열이 나지 않는 상태로 최소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 될 때.

첨부1. 2022-2023절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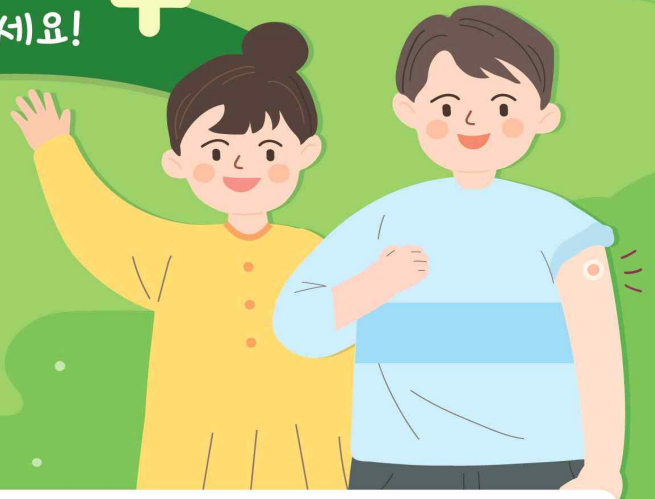
첨부2.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[Q&A]

2022년 9월 19일

금 모 래 초 등 학 교 장

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!

# 만 13세 이하 어린이



## • 2022-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•

- | 지원대상 |** 생후 6개월 ~ 만 13세 어린이 (2009.1.1. ~ 2022.8.31. 출생)  
※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한 어린이는 실제 생년월일 기준
- | 지원기간 |** 2회 접종대상자 2022.9.21.(수) ~ 2023.4.30.(일)  
1회 접종대상자 2022.10.5.(수) ~ 2023.4.30.(일)  
※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 의사와 상담 필요
- | 접종기관 |**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
※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(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)

###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!

-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
-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
-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
- 대상자, 보호자는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
  - 발열
  - 인후통
  - 기침 등 호흡기 증상
- 접종 후 현장에서 20~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

###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



예방접종도우미

검색창에 '예방접종도우미'를 검색해주세요.



바로가기 QR코드 스캔

<https://nip.kdca.go.kr/>

## 첨부2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(Q&A)

### 1.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?

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,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.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,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. 특히, 만 65세 이상 어르신, 어린이, 임신부, 폐질환/심장질환 환자, 특정 만성질환 환자,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.

### 2.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염되나요?

인플루엔자는 기침,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됩니다. 기침/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,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### 3.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?

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~4일(평균 2일)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. 인플루엔자는 발열, 기침, 두통, 근육통, 콧물,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. 소아는 오심, 구토,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~4일간 지속되지만,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.

### 4. 인플루엔자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?

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,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, 올바른 손 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5. 인플루엔자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?

인플루엔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~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### 6. 인플루엔자는 치료제가 있나요?

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, 자나미비르, 페라미비르, 발록사비르가 있으며,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.

### 7.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나요?

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, 등원,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.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,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.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복용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.

### 8.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
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

특히,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
- 어린이 : 숨참, 호흡곤란, 청색증, 흉통, 중증의 근육통, 탈수(8시간 이상 무뇨 등), 경련, 40℃ 이상 고열, 생후 12주 이내 유아의 발열, 만성질환의 악화 등
- 어른 : 호흡곤란이나 짧은 호흡, 가슴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, 지속적인 어지럼증, 경련, 무뇨, 중증의 근육통, 중증의 위약감, 만성질환의 악화 등

## 9.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?

합병증은 어르신, 어린이,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, 심낭염, 기흉, 기종격동, 뇌염, 뇌증, 횡단성척수염, 횡문근융해증,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,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

## 10.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?

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~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, 최근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없었습니다. 또한, '22년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,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므로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.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감염병통계포털\*에 매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\* 감염병통계포털 바로가기 : <http://www.kdca.go.kr/npt>

## 11.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는 요양급여 인정이 되나요?

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.

<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대상자 >

- 인플루엔자 검사양성자
- 고위험군(유행주의보 발령시)
  - 만 9세 이하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-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- 면역저하자
  - 만 65세 이상 - 대사장애, 심장질환, 폐질환, 신장기능장애, 혈액질환, 신경계질환 등 기저질환자

## 12.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?

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이 경과 해야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, 그 이전까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~90%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,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 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# 13.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어떻게 구분하나요?

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,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,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℃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,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,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.

## 14.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,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발열,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 2022년에는 7월 이후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고,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,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이력 및 백신 접종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의심 시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.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개인방역수칙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특히,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38℃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시고,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